

말레이시아 2020: 의회 쿠데타의 발생과 딜레마의 정치

김형종* · 황인원**

국문초록

2020년은 정권교체에 성공한 개혁(reformarsi)세력이 반세기 넘게 지속된 구질서의 해체라는 민주화 이행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그러나 2018년 5월 총선으로 독립 이후 61년 만에 최초로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희망연합(PH, Pakatan Harapan)정부가 2020년 의회쿠데타로 붕괴되면서 정국은 혼돈에 빠졌다. 의회 쿠데타를 주도하며 급조된 국민동맹(PN, Perikatan Nasional)의 불안한 권력기반과 정통성 결여는 지속적인 권력다툼을 낳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 침체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는데 정치적 요인은 이에 효과적 대응을 저해했다. 정부 부채의 증가, 해외직접투자의 위축 등 구조적 문제도 대두되었다. 이 논문은 2020년 의회쿠데타로 촉발된 정치 변동과정과 의미를 다음의 핵심적 질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의회 쿠데타는 어떻게 일어나게 발생하였으며,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는가? 의회 쿠데타 발발이 여권은 물론 야권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였는가? 이러한 변화는 향후 말레이시아 정치발전과 어떤 상관성을 지닐 것인가? 정치변동에 따른 경제적 외교적 영향은 무엇인가? 2020년에 전개된 일련의 정치과정은 단순히 구체제로의 복귀 혹은 민주화 이행의 유턴(U-turn)을 넘어서 ‘말레이-무슬림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종족, 종교 정치의 부활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 주저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kimsea@yonsei.ac.kr.

** 교신저자,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hwang@gnu.ac.kr.

주제어: 국민동맹, 의회쿠데타, 코로나19, 마하티르 모하마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I. 서론

2020년 말레이시아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에 정치권력 투쟁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진투구가 한해 내내 전개되었다. ‘근대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하티르(Mahathir Mohamad) 전 총리가 2020년까지 선진국 합류를 목표로 제시했던 ‘Vision 2020’과 너무나 동떨어진 혼란스러운 현실이었다. 2020년 2월 의회 쿠데타 발생의 빌미를 제공하고, 희망연합(PH, Pakatan Harapan)의 몰락과 정치적 무질서를 자초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마하티르였다.

2018년 5월 총선으로 독립 이후 61년 만에 최초로 여야 간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PH 정부의 몰락은 갑작스럽게 발생했다.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내무부장관을 추종하는 여권 일부의 하원의원들이 야권 의원들과 2020년 2월 23일 쉐라톤 호텔에서 의회 쿠데타를 위한 회동을 성사시키고 마하티르 총리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총리직을 사임하며 PH정권은 붕괴되었다.¹⁾ 구질서의 해체를 위한 PH의 정치적 실험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의회 쿠데타를 주도하며 급조된 국민동맹(PN, Perikatan Nasional) 역시 전체 하원의석의 과반수를 겨우 2석 넘기는 ‘불안정한’ 집권연합으로서 정국은 여야 간 ‘초박빙’의 대결구도 속에서 그야말로 권력다툼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1) 쿠데타는 헌법에 위배되는 수단을 통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복으로 선동을 통한 군대 등을 이용한 무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2월의 정권교체가 지난 총선의 민심에 역행한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으로 인한 인위적이고 돌발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취약한 권력 기반 속에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과 통제는 PN정권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러 차례의 이동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후반 감염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사태는 악화되었다. 정부가 일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지만 경기 침체와 빈곤율의 증가는 심화되었으며 정부부채 증가와 한정된 세수로 재정압박은 증가하였다. 정치 불안정은 대외 신뢰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도 했으나 정치권력 투쟁과 코로나로 인해 외교 운신의 폭은 매우 제한되었다.

경제와 외교 전반에 영향을 미친 국내 정치변동은 말레이시아의 2020년을 이해하는데 핵심적 요인이다. 의회 쿠데타는 어떻게 일어나게 발생하였으며,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는가? 의회 쿠데타 발발이 여권은 물론 야권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가? 이러한 변화는 향후 말레이시아 정치발전과 어떤 상관성을 지닐 것인가? 정치변동에 따른 경제적 외교적 영향은 무엇인가? 이 논문에서 2020년 말레이시아 정가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핵심적인 문제들이다.

II. 의회 쿠데타 발생의 정치적 함의

2020년 2월 23일 “쉐라톤 회동(Sheraton Move)”으로 촉발된 의회 쿠데타로 3월 1일 무히딘 야신이 8대 총리에 취임하고 PH가 야권으로 전락하는데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쉐라톤 회동은 2월 23일 인민공정당(PKR, Parti Keadilan Rakyat)의 아즈민 알리(Azmin Ali) 지지 의원들이 세라톤 호텔에서 야권의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 Parti Islam Se-Malaysia), 말레이시아화인협회(MCA,

Malaysian Chinese Association), 말레이시아인도인회의(MIC, Malaysian Indian Congress), 사라왁정당연합(GPS, Gabungan Parti Sarawak) 소속 하원의원들과 모이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PH 소속의 사바유산(Warisan Sabah)과 무히딘을 지지하는 말레이시아쁘리부미연합당(Bersatu, Parti Pribumi Bersatu Malaysia) 하원의원들이 합류하였고, 당일 저녁에 Bersatu(무히딘 야신 총재), UMNO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드 Ahmad Zahid Hamid 총재), PKR(아즈미 알리 Azmin Ali 수석부총재), GPS (아방 조하리 오뽕 Abang Johari Openg 총재), Warisan(샤피 압달 Shafie Apdal 총재), PAS(압둘 하디 아왕 Abdul Haid Awang 총재)가 국왕을 알현하기 위해 왕궁에서 회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왕과의 면담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UMNO 사무총장 안와르 무사(Annuar Musa)를 비롯한 쿠데타 주역들은 PH의 “임박한 몰락(PH’s imminent death)”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쉐라톤 회동 직후 정가의 관심은 과연 마하티르 총리가 ‘친위 쿠데타(self-coup)’를 주도한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3월 1일 무히딘의 총리 취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해보면 마하티르 자신이 의회 쿠데타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PKR의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진영으로부터 권력 이양의 압박을 받던 마하티르가 정국의 수습보다는 정계 개편을 통한 집권 연장을 꾀함으로써 PH 정부의 몰락에 일조한 것은 분명하다.

쉐라톤 회동 직후 마하티르에 의한 정계 개편 움직임은 총리직 즉각 사임 발표와 연이은 국왕 면담을 통한 임시총리직 수락으로 가시화되었다. 임시총리직을 수락한 마하티르는 소용돌이 정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야를 막론한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마하티르의 제안은 PH는 물론 의회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에 의해서도 거부되었고, 마하티르는 임시총리직 수락 하루 만에 전격 사임하였

다. 이후 정국은 집권 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총리직을 향한 마하티르, 무히딘 그리고 안와르 간의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회 쿠데타를 주도한 무히딘과 아즈민 세력을 제외한 PH 하원의원들은 안와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PH의 지속적인 집권을 위하여 마하티르를 다시 총리 후보로 낙점했다. 그러나 국왕이 무히딘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용돌이 정국은 의회 쿠데타 세력의 최종 승리로 귀결되었다.

그렇다면 의회 쿠데타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사실 2020년에 접어들면서 정가에서는 정계 재편의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회자되었다. PKR의 아즈민 지지세력과 Bersatu를 중심으로 PH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마하티르가 15대 총선까지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공개적인 지지들이 나오고 있었다. 2020년 3월로 예정된 하원의회에서 마하티르 총리에 대한 신임결의안이 제출될 것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권동맹이 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의회 쿠데타 발생의 직접적인 배경은 마하티르와 안와르 간의 총리직 이양에 관한 불협화음을 관리하지 못한 PH정권의 리더십 실패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0년 2월 21일에 열린 PH 총재단 협의회(presidential council)는 차기 총리는 안와르라는 것을 재확인했으나, 총리직 이양 시기는 2020년 11월 ‘APEC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고 구체적인 날짜는 마하티르에게 일임한다는 모호한 결정을 하였다.²⁾ 이는 민주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과 국가신뢰당(Amanah, Parti Amanah Negara) 지도부가 총리 이양 날짜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PH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2) 안와르는 21일 PH 총재단 협의회에서 총리직 이양에 관한 논란이 종결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마하티르는 당일 회의에서 총리직 이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11월 APEC 총회 이후에 사임할 것이라며 양자 간에 온도차이가 분명했다(Malaysiakini 2020/02/19).

Bersatu 지도부가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나온 모호한 결과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PH 내부에서 권력 이양에 대한 불확실, 불신, 불만 그리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PKR 하원 의원인 웡첸(Wong Chen)은 “만약 PH 총재단 협의회에서 총리 이양의 구체적인 날짜에 합의를 보았다면 ‘뒷구멍 정부(backdoor government)’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고 정국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회 쿠데타 발생의 내부적 책임을 강조했다 (Malaysiakini 2020/02/21).

의회 쿠데타 발생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마하티르 총리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일단 지난 총선의 핵심 공약인 ‘안와르에게로의 권력 이양’에 대해서 마하티르 스스로 주저함을 보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안와르의 대안으로 무히딘이나 아즈민 등 특정인을 대안으로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인 것도 아니다. UMNO와 일괄적인(en-bloc) 연합도 원하지 않았다. 이는 마하티르는 지난 총선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했던 UMNO의 부패한 인사들에 대한 일관된 거부감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퇴임을 앞둔 마하티르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지키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자신이 창당한 Bersatu가 ‘부패한 UMNO’를 대체하여 정국 주도권을 잡고 집권체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집 전 총리로 대변되는 부패한 UMNO 지도부를 배제하고, ‘개혁, 이슬람 그리고 말레이계 이익’을 핵심축으로 한 ‘정치권의 새판 짜기’가 매력적인 선택지였다. 이는 쉐라톤 회동 직후 마하티르가 추진했던 거국내각을 통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 구상에서 엿볼 수 있다. 거국내각은 안와르에게 총리직 이양이라는 하나의 선택만을 강요받던 상황에서 마하티르가 새로운 판에서 자신의 선택과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안이었다. 그러나 마하티르의 의도는 실패로 끝나고, 결국 PH 정권의 몰락으로 귀결되었다.

의회 쿠데타로 인한 새로운 집권연합(PN)의 출범은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는가? PN과 PH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구성정당 면면에서 드러난다. PH가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를 포함한 다종족 집권연합이었음에 반해, PN은 Bersatu, UMNO, PAS 등 말레이계 정당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연합체이다. PN 지도부 역시 새로운 집권연합은 ‘말레이의 우월적 지위(Malay dominance)’를 보존하기 위한 ‘말레이-무슬림 전선(Malay-Muslim Front)’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2018년 총선 이후 가장 우려스러운 정치적 전망은 독립 이후 처음으로 야당의 처지로 전락한 UMNO가 PAS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종족 및 종교정치를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의회 쿠데타의 발생은 이런 우려를 넘어 UMNO와 PAS의 공조체제에 PH에 참여했던 말레이계 개혁세력의 한 축이 합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말레이-무슬림 중심의 집권연합이 출범한 것이다. 이는 향후 말레이시아 정치가 종족정치의 심화라는 방향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PN이 주도하는 ‘말레이 정치(Malay politics)’가 성공적으로 안착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PN 내에서 제각기 말레이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 간 경쟁이 고조되고, 정당 내 파벌 갈등도 고조되면서 ‘말레이계 통합(Malay unity)’이 부재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쿠부텍(Khoo Boo Teik)은 의회 쿠데타에 성공한 PN의 말레이 정치가 스스로 개혁할 내적 동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과거 UMNO가 국민연합(BN, Barisan Nasional)에서 패권적 지위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들을 강력하게 주도했다. 그러나 PN은 말레이계 이권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PN이 주도하는 말레이 정치는 내부적으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질서와 불안정은 더욱 심화될 것이

라는 것이다(Khoo 2020).

Ⅲ. 여권의 갈등 심화와 무히딘의 ‘생존 게임’

무히딘 정부는 하원의원 222명의 과반을 겨우 2명 넘기는 취약한 권력기반을 가진 태생적 한계 속에 출범하였다. 정통성의 위기가 내재한 무히딘 정부가 한해 내내 직면했던 도전의 핵심은 무히딘에 대한 ‘의회 불신임’ 가능성과 ‘조기 총선’ 요구였다. 의회 불신임이 주로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반면, 조기 총선 실시는 여권 내부에서 주로 제기되었다.

무히딘 정부의 불안정성은 PN에서 Bersatu 하원의원이 겨우 31명에 불과한 것에 기인한다. 31명 중에서도 2018년 총선에서 당선된 Bersatu 하원의원은 단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UMNO로부터 Bersatu로 당적을 바꾼 15명, 의회 쿠데타 이후 Bersatu로 합류한 PKR의 아즈민 계열 10명이다. 여기에 PAS와 GPS 각각 18명, BN 42명(UMNO 39명, MCA 2명, MIC 1명)과 사바와 사라왁의 몇몇 소수정당과 무소속 4명이 합해진 것이 무히딘 정부의 불안정하고 분열적인 구성이다. 이중 단 3명만 이탈되어도 무히딘은 언제든지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열악한 상황에 부닥쳐있는 것이다. 의회 쿠데타 이후 ‘가치동맹’ 보다는 ‘권력동맹’에 의해 정치적 이합집산이 좌우될 수 있는 현실이 무히딘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히딘이 취임 이후 행한 첫 정치적 행보는 3월 9일로 예정되었던 하원의회 소집을 5월 18일로 연기하는 것이었다. 이는 야권에서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저지하는 동시에, PN에서 불안정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조치였다. 5월 18일로 연기되었던 하원의회도 코로나

19 팬데믹의 위기를 핑계로 개원을 단 하루로 제한하고 국왕의 연설만을 청취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총리 불신임안이 논의되거나 상정될 기회를 제거하였다. 이와 더불어 무히딘 정부는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를 이유로 전국에 통제령(shutdown)을 발동함으로써 의회 쿠데타 발발 이후 야권 및 시민사회의 집단적 저항이 확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포괄적 검열과 규제도 강화하였다.

태생적으로 정통성의 위기를 지니고 출범한 무히딘 정부는 BN이라는 구체제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최소화함은 물론, PH와도 차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차별화 움직임은 내각 구성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집권연합의 하원의석 숫자에 따라 주요 지분을 분배하던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무히딘은 부총리직을 공식으로 남겨 두고 4명의 선임장관을 임명하였다. 이들은 모두 말레이계로 Bersatu에서 2명, UMNO에서 1명, 사라왁에 기반한 GPS에서 1명으로 채워졌다. 각료 중에서 중국계와 인도계는 MCA와 MIC에서 각각 1명으로 단 2명뿐이었다. 장관의 대부분이 말레이계로 채워짐으로써 무히딘 정부가 PH와 달리 ‘말레이 우선주의(Malay first)’를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EIU 2020: 24). 하원의원 숫자에서 UMNO가 PN의 최대 지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부패 혐의가 있는 UMNO 지도부를 내각에서 배제함으로써 과거 BN과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향후 무히딘과 UMNO의 고조될 갈등을 충분히 예견하게 하는 것이었다.

의회 쿠데타 이후 말레이시아에는 무히딘이 주도하는 ‘PN’, UMNO가 주도하는 ‘BN’ 그리고 PH와 사바의 Warisan이 공조하는 ‘PH Plus’라는 세 개의 정당연합이 존재한다.³⁾ UMNO가 주도하는

3) 2019년 11월, Tanjung Piai 보궐선거를 계기로 국민합의(Muafakat Nasional)라는 야권 공조체제가 출범되었으나 이는 UMNO와 PAS의 ‘말레이 연대’로써 선거위원회

BN은 무히딘 정부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PN에의 합류 여부를 집권연합에서의 지분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상 BN과 PN이라는 두 개의 정당연합이 집권연합을 구성하는 상황은 의회 쿠데타 이후 불안정한 정국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차기 총선을 위해서라도 무히딘의 PN은 UMNO와의 공식적인 통합이 절실했다. 그러나 PAS와 달리 말레이계 유권자의 지지기반이 중복되는 Bersatu와 UMNO는 차기 총선에서 공천 지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관계였다.

이런 와중에 나집 전 총리의 권력 남용, 불법 정치자금 세탁 및 IMDB 정부투자금 불법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한 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⁴⁾ 당시 UMNO가 PN과 공조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나집에 대한 사법처리 속도와 강도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무히딘 정부는 나집에 대한 전격적인 유죄 판결을 통해 과거 부패한 BN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의회 쿠데타 이후 조기 총선을 실시하라는 압력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는 아흐마드 자히드(Ahmad Zahid) UMNO 총재와 나집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집에 대한 전격적인 사법처리를 통해 UMNO에서 차기 당 지도부의 주도권 경쟁과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조기 총선에 대한 UMNO의 공세를 상대적으로 완화하려는 무히딘의 노림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나집 판결 이후 무히딘 총리와 PN에 대한 UMNO의 입장이 더욱 강경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카이리 자마루딘

에 공식으로 등록된 정당연합은 아니다. 공식적인 정당연합의 등록을 위한 UMNO와 PAS의 논란과 갈등은 Faisal Asyraf(06/01/2021)을 참조할 것.

4) 고등법원은 나집의 7가지 혐의에 각각 총 72년 형을 선고하였으나, 형의 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례에 따라 나집의 실제 수감 기간은 12년으로 결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idir Reduan Abdul Rashid(28/07/2020)을 참조할 것.

(Khairy Jamaluddin) 등을 중심으로 UMNO의 젊고 온건한 세력이 나집과 거리두기를 통한 내부 개혁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총선을 앞두고 당내의 기득권 세력들이 나집 전 총리와 자히드 총재로 대변되는 당 지도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결국 나집 판결 이틀 후에 UMNO 지도부는 PN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차기 총선에서 UMNO는 Bersatu와 공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Malaysiakini 2020/07/30). 결국 나집에 대한 전격적인 사법처리를 통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했던 무히딘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권의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다.

UMNO와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무히딘은 공식인 부총리직을 UMNO에 배정하겠다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UMNO에서 부총리를 지명하면 받아들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누가 부총리에 임명되는가에 따라 UMNO의 분열이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무히딘의 생존 전략의 일환이었다. 비록 UMNO에 부총리 추천을 일임하였으나, 무히딘은 히샤무딘 후세인(Hishamuddin Hussein) 국방장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Tan 2021/01/11). 그러나 집권연합의 최대 지주인 UMNO의 총재가 부총리직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UMNO 지도부의 입장이었기에 무히딘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2020년 말로 접어들면서 나집 전 총리와 자히드 총재는 안와르와의 연합을 통해서 정권을 재탈환하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무히딘에게 조기 총선을 실시하라는 압박의 공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2021년도에 접어들면서 일부 UMNO 하원의원들이 무히딘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발표하였고,⁵⁾ 2021년 1월 31일에 개

5) 2021년 1월 2일 아흐마드 자즈란 야콥(Ahmad Jazlan Yaakub)에 이어 1월 13일에는 나즈리 아지즈(Nazri Aziz)가 무히딘에 대한 지지 철회를 발표하였다(Tan 10/01/

최될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UMNO 지도부가 무히딘 정부와의 공조 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2021년 1월 12일에 8월까지 모든 선거의 연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IV. 안와르의 ‘숫자 게임’과 야권의 분열

PH는 1998년 이후 안와르를 중심으로 야권에서 개혁정국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오랜 숙적이었던 마하티르와의 극적인 화해와 연합을 통해 2018년 총선에서 부패 척결이라는 ‘민심의 희망’을 바탕으로 61년 만에 정권교체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의회 쿠데타 대응과정에서 보인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행보는 PH정권의 붕괴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쉐라톤 회동 전후 혼란의 정국에서 다수 하원의원의 지지를 받던 마하티르를 중심으로 PH 집권체제를 유지하며 권력 이양의 시기를 조율하려는 선택보다는, 인위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숫자 게임’에 집착하면서 좌충우돌하였다. 양 진영은 의회 쿠데타의 발발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민심을 배신’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야권으로 전략한 PH는 무히딘 정부가 정통성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신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로 인해 PH가 시민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중적 저항을 조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무히딘 정부도 정통성의 위기를 모면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적극적으로

2021; Rahimy 13/01/2021). 이로써 무히딘에 대한 지지는 공식인 2명의 하원의원을 제외한 총 220명 중에서 과반수에 1명이 부족한 109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활용하였다. 그러나 무히딘 정부가 정통성의 시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의회 쿠데타 이후에도 야권의 관심은 여전히 총리 후보 문제에 집중되었고 여기에 권력 상실에 대한 책임 공방까지 가세하여 지속적인 분열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신정부 출범 이후 202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총리 후보를 둘러싸고 야권의 내홍은 끊이지 않았다.⁶⁾ 이 기간에 DAP와 Amanah는 야권이 ‘PH Plus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마하티르와 안와르 양 진영 간의 중재에 공을 들였다. 첫 번째 중재는 안와르를 총리, 마하티르의 아들인 무크리즈 마하티르(Mukhriz Mahathir)를 부총리로 하는 1안과 마하티르 총리-안와르 부총리라는 2안으로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치열한 논란 끝에 안와르 진영이 2안을 공식 거부하고, 마하티르 역시 세 차례에 걸쳐서 총리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새로운 중재안이 급부상하였다. DAP에서 사바 주지사이자 Warisan 총재인 샤피 압달(Shafie Abdal)을 총리 후보로 제안한 것이다. 이는 의회 쿠데타 이후 동부 사바와 사라왁의 정당들이 어느 진영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연방 권력의 향배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와르에게 하원의원의 과반수를 확보하여 정권 재탈환의 기회를 우선 부여하되, 만약 안와르가 실패하면 샤피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야권의 분열로] 정권 재탈환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자체로 2018년 총선 민심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절박함을 반영한 것이었다

6) 2020년 6월에 마하티르와 그를 지지하는 하원의원 4명이 Bersatu로부터 축출되면서, PH에는 PKR, DAP, Amanah만 남게 되었다. 여기에 사바의 Warisan과 소속 정당이 부재한 마하티르 세력이 합쳐져서 야권은 ‘PH Plus’로 명명되었다. Bersatu에서 출당된 마하티르는 2020년 8월 조국투사당(Pejuang, Parti Pejuang Tanah Air)이라는 말레이 정당을 창당하였고, 마하티르와 함께 출당된 Bersatu 청년의장 출신인 사이드 사딕(Syed Saddiq)은 새로운 청년정치의 실험을 목표로 말레이시아통합민주동맹(Muda, Malaysian United Democratic Alliance)이라는 다종족정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Pejuang과 Muda의 정당 등록이 Registrar of Societies(ROS)에 의해 거부되면서 2021년 1월 현재 양 정당은 임의단체로 존재하고 있다.

(Malaysiakini 2020/07/27).

그러나 DAP와 Amanah의 새로운 제안은 야권의 분열과 갈등의 방정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야권의 총리 후보에 사피를 포함하는 안에 마하티르는 즉각 지지를 표명하였고, 사피 역시 희망의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PKR이 지난 총선 공약에 따라 안와르만이 PH의 유일한 총리 후보라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야권은 DAP와 Amanah를 공통분모로 안와르의 PKR과 마하티르의 지지를 받는 Warisan이 갈등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2020년 7월에 접어들면서 PH의 마하티르와 안와르 진영이 PH 총리 후보를 안와르로 합의하였지만, Plus는 안와르를 지지하지 않는 형국으로 변모하였다. 이는 범야권 총리 후보로서의 안와르의 입지가 오히려 좁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안와르의 ‘숫자 게임’이 본격화되었다. 안와르가 9월 23일 국왕 알현을 통한 정권교체를 실현하겠다고 언론에 공개하였다. 자신이 하원의원의 과반수를 충분히 넘는 지지자의 명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Hariz 2020/09/23). 이는 DAP와 Amanah 최고 지도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전격적인 발표였다. 당시 “소수 종족에 대한 확실한 보호장치를 담보하는 말레이-무슬림 중심” 정도로만 통보받은 안와르의 구상에 대해 Amanah는 전폭적인 지지를, DAP는 “청렴성,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 등”을 전제로 조건부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안와르의 발표 이후 자히드 총재가 UMNO와 BN의 “많은” 의원들이 안와르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야권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특히 UMNO에서 부패 혐의에 연루된 자히드와 나집이 안와르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PAS도 안와르의 구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DAP는 정국이 “유례가 없는 대혼란(uncharted waters)”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Ng 24/09/2020). 그러나 안와르가 약 한 달 후 국왕

을 알현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지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이후 UMNO가 무히딘 정부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안와르의 구상은 물거품이 되었다. 당시 정가에서 UMNO가 무히딘 총리와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와르를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며 안와르는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Ng 2020/10/21).

야권의 분열은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다시 재현되었고 안와르에 대한 신뢰는 더욱 약화되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의는 야권이 이를 총리 불신임과 연동시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전례가 없는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다.⁷⁾ 지난 9월의 숫자 게임에서 실패한 안와르는 여전히 과반이 넘는 하원의원의 지지를 자신하면서 예산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무히딘 총리의 불신임을 자신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PH Plus는 11월 5일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심의의 첫 관문인 정책단계(policy stage)에서 의원 개개인의 찬반을 계산하는 기록표결 방식인 블록투표(bloc voting)를 통해 예산안을 부결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안와르가 투표가 임박한 순간에 이러한 투표방식에 반대함으로써 단순히 찬반 목소리를 듣고 하원의장이 판단하는 구두투표(voice voting)가 이루어짐으로써 정책단계를 통과하였다. 이후 전개된 위원회단계(committee stage)에서는 논의하는 27개 부처 중 어느 한 부처의 예산안만 부결되어도 이는 내각 불신임으로 간주하기에 야권에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었다.⁸⁾ 그러나 안와르의 태도 변화에 불만을 품은 Warisan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블록투표로

7) 말레이시아에서 정부 예산안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리는 즉시 국왕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의회 해산을 요청하는 것이 관례다. 예산안 심의과정과 이를 둘러싼 논쟁은 Tan & Mohamed(2013)를 참조할 것.

8) 2021년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논쟁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Wong(2020)을 참조할 것.

진행된 9개 부처 예산안이 모두 통과하게 됨으로써 야권의 계획은 결국 무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야권에서 안와르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V.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위기

2020년 말레이시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경제회복을 견인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했다. 3월 18일 첫 이동통제를 한 이후 3월 27일부터 일부 지역에 통제를 강화했다.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제한적 이동통제를 하고 6월10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다시 이동통제를 시행했다. 코로나 사태는 9월까지 통제 범위 내에 있는 듯했으나 10월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12월 31일 기준 누적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11만 건에 이르며 관련 사망자 수는 471명을 기록했다.⁹⁾

말레이시아 경제는 하이테크 산업과 서비스업이 다른 아세안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발달한 다변화된 경제구조 덕분에 코로나19 초기에는 경제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국제무역 및 투자유입 감소 등 대외적 요인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 이동통제 조치 등으로 내수가 침체되는 대내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위기를 맞았다. 나아가 2월 ‘의회 쿠데타’로 인한 PH정권 붕괴와 PN정권의 등장은 정치 불안정에 그치지 않고 경제 불확실성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PN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한 권력다툼에 집중하며 정부 투자기업의 개혁, 정부부채의 축소와 재정 건전성 향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말레이시아 경제는

9)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검색일 2021년 1월 10일).

악화되었다.

당초 2020년 경제성장이 -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3/4분기 성장률이 반등하며 -5.3%로 조정되었다. 분기별 GDP 성장률은 2/4분기 -17.1%와 3/4분기 -2.7%를 각각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경우 2021년 경제성장률은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제정책(MCO) 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RM20~24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민간소비는 2/4분기 -18.5%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3/4분기에는 2.1% 하락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2020년 총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RM1.2조를 기록해 전년 대비 3.6% 하락했다.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GDP의 70%에 달해 경제성장에 핵심적 요소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수출이 1.4% 하락한 RM9,810억, 수입은 6.3% 감소한 RM7,962억을 각각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RM1,848억으로 전년 대비 26.9% 성장했다. 12월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출에 힘입어 약 65% 증가했다. 그러나, 무역수지 흑자는 수입액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수입액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다가 12월에 이르러서야 전년 대비 순증가로 돌아섰다(The Star 2021/01/29).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수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직접투자 유치는 말레이시아 경제회복과 중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 요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꾸준히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했었고 중국과 미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추가적인 신규 투자유입이 기대되었었다. 그러나 2020년 말레이시아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68%로 급락한 USD25억에 그쳤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2020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USD1,070억을 기록했다. 아세안 유입액 중 말레

이시아 투자액은 5%에 그쳤다. 반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에 아세안 FDI 유입액의 80%가 집중되었다. 싱가포르는 37% 하락한 USD580억, 베트남은 10% 하락한 USD140억, 태국은 50% 하락한 USD99억을 각각 기록했다(UNCTAD 2020).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감소는 주변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말레이시아의 경쟁력 약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당초 중국과 미국 간 무역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 생산 기지를 말레이시아로 이전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투자 유치 감소가 더욱 우려된다. 질적인 면에서도 말레이시아는 양질의 FDI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기술이전, 국내기업 생산 네트워크 참여 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스타트업 지원과 산학 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Jusoh 2020).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관리에서 정부지출은 핵심적 사안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 국면에서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정부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 경제위기 관리를 위해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도입했다. 중앙은행은 2020년 지급준비율(OPR)을 1% 인하하며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자 했다. 정부는 RM3,050억을 경기부양에 지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지출이 실제 경기부양에 기여했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말레이시아 정치경제학자 고메즈(Gomez)는 정부 투자가 상장기업 상위 10대 기업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중장기적 경제구조 변화를 추진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여 이러한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Malaysiakini 2020/12/07). 예를 들어 민간기업 98.5%가 중소기업인 현실에서 3월에 시행된 경기부양책이 이들을 당초 부양책에서 배제했다가 뒤늦게 추가적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2020년 하반기에 코로나19 기금을 설립하고 현금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전개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2021년 예산으로 최대 규모인 RM3,230억을 편성했다. 2021년 예산안에는 500여 학교에 15만 명 학생에게 무료로 노트북을 보급하는 방안과 신규 대졸자의 3개월 인턴 고용에 대해 1인당 RM1천을 고용주에 지급할 계획이 포함되었다. 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빈곤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빈곤율 통계 조사 발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빈곤층은 약 76만 명으로 전체인구 약 5.6%로 2017년 7.6%보다 감소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RM2,208 이하를 빈곤층으로 분류했다. 농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았는데 대표적으로 사바와 끌란판주가 2019년 기준 12.4%와 19.5%로 가장 높은 빈곤율을 기록했다. 유엔 특별보고관 알톤(Alton)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PH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빈곤율 개선이 후퇴할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다(The Star 2020/07/06).

코로나 사태 장기화 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특히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부채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정부부채의 증가는 자칫 국제 신용도에 부정적 평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 내 운영관리비, 채무상환 비용 등의 비중이 이미 높고 세수 원도 한정되어 있어서 전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재정 건전성은 나집 정권부터 꾸준히 악화되었으며 PH정권에서도 건축 재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정부의 직접 부채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책으로 늘어난 반면 세수는 한정되고 정부 예산의 95%가 운영관리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부채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 재정적자는 RM84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방정부의 직접 채무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990년 80.7%를 이후 지속해서 하락했다가 2001년 41.4%, 2009년 52%를 기록했다. 연방정부의 총부채는 9월 말 기준 RM1.25조로 GDP의 87.3%에 해당한다. 연방정부 직접 채무는 총 정부부채의 70%에 달한다. 채무원리금 상환은 2020년 정부 세수의 15.4%에 해당하며 2021년에는 16.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상환 비용이 2021년 예산안 중 개발 관련 항목 배정액인 RM389억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정부 예산을 통한 생산성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Yeap 2020).

<표1>. 말레이시아 정부부채 현황(단위 RM 10억)

	2017	2018	2019	2020 (1-9월)
연방정부 채무	686.84	741.05	793	874.3
정부 보증	102.1	132.7	162.1	177
IMDB	38.3	32.2	31.9	32.3
PPP 임대부채 및 기타 부채	260.1	184.9	182.2	173.3
총 정부부채	1,087.3	1,090.85	1,169.2	1,256.9

출처:Yeap 2020.

제한된 세수원도 재정압박의 또 다른 원인이다. 세수원이 다양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지출 확대는 한계가 있다. 국영석유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 배당금은 정부 세입의 약 20~30%를 차지한다.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정부 투자기관 및 기업의 배당금을 늘리려 시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형국이다. 정부부채의 증가는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세수원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2020년 12월 10일 재무부 차관은 부가가치세(GST)의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ST는 2015년 도입된 후 소비자 부담 증가를 가져옴에 따라 2018년 PH의 총선 공약으로

폐지되었으며 대신 판매용역세(SST)가 도입되었다.

공기업과 정부 투자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도 재정적 여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 정부 투자기업의 가치는 주식 시가총액의 36%에 달하지만, 고용은 5%에 그친다. 2021년 예산안에서 3만5천 개의 일자리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이지 세부 계획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Malaysiakini 2020/11/10). PN정부는 다수의 여당 의원들에게 정부 투자기관과 공기업 요직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Bersatu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높은 내각 점유율을 보이면서 기타 PN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혜택을 배분하려는 정치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로 풀이된다. 일례로 UMNO의 원로 의원인 툰꾸 라젤레히(Tengku Razaleigh)는 PN정부의 빼뜨로나스 고문직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빼뜨로나스는 2020년 3/4분기 RM34억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기에 2020년 약 RM340억의 배당액을 정부에 지급할 예정이다(Malaysiakini 2020/12/03). 현재 PN 소속 정당의 113명의 소속 의원 중에서 겸직을 하지 않는 경우는 17%에 그친다(Ong 2020).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행태는 관련 기업의 평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투자기업의 약 15,000건에 달하는 정부 계약을 포함하고 있다. 1MDB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정부 투자기업의 투명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부채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방정부 채무는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더 적극적인 부양책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PN정부는 정부부채 감축을 선언했다. 동부해안철도프로젝트(ECRP)는 지속하기로 했지만, 그간 논란이 된 쿠알라룸푸-싱가포르 고속전철(KLSG-HSR)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취소했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책에 있어 민간에 비용을 전가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PN정부는 시민들의 생활비 문제 완화를 위해 퇴직연금(EPF, Employees

Provident Fund)의 조기 인출을 허용했다. 2020년 3월 이후 급여소득 30% 이상이 감소한 때에만 2021년부터 연금의 조기 인출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민간노조연합(MTUC, Malaysian Trades Union Congress) 관계자에 따르면 30% 이상의 급여소득 감소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되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Free Malaysia Today 2020/12/15). 더구나 EPF측에 따르면 2021년 은퇴 예정인 가입자 중 약 54%는 개인 평균 누적 납부금은 RM5만 이하로 대부분이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가 지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자금을 대가로 시민에게 그 비용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코로나로 인한 통제정책으로 고용불안도 확대되었다. 특히, 6월에는 사업장의 인력을 50%로 제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도 수입에 큰 타격을 입었다. PN 정부는 코로나 정국 속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5월에는 약 2천 명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강제 본국 송환에 따른 비용을 대기업의 경우 사측이 부담하는 안을 시사했다. 비용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국 송환 노동자와 같은 수의 대체 이주노동자 고용을 조속히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협회(FMM, Federation of Malaysian Manufacturers)는 고용자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PN정권의 경제 대응책에 대해서 대외적 평가도 긍정적이지 않다. 신용평가기관인 Fitch에 따르면 인구성장의 둔화, 재정지출 감축으로 인해 미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는 1%에 그쳐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 2.3%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했다. 지난 10년의 6.4%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망대로라면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하는 것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의 꾸준한 증가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잦은 정치권력의 교체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했다. 잦은 정권교체는 정책의 연속성과 개혁의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적 과도기적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증가는 잠재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국인 고용 우선 정책 등의 보호주의 정책 전개 가능성도 지적했다. 정치변동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지적했다(Malaymail 2020/09/30). Fitch는 12월 4일 말레이시아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Fitch Ratings 2020/12/4). Fitch의 지적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국내 조사 결과도 나왔다. EMIR Research의 3/4분기 Focused Group Discussion에 따르면 경제적 위기에 대한 원인으로 코로나 사태보다 정치적 불안정에서 기인한다는 조사 결과도 제기됐다(New Straits Times 2020/10/16).

말레이계에 대한 우대 기조도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고 두뇌유출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나집 정권하에서 심화된 종족정치 경향은 말레이계의 지지가 정권 창출의 핵심적 기반이 되어버린 현재 더욱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었다. PN정부는 말레이계에 대한 지원책의 목적으로 RM111억을 부미뿌트라(Bumiputra) 발전 아젠다에 배정했다. 부미뿌뜨라를 지원하는 기관인 국민신탁협의회(Majilis Amanah Rakyat)에 RM5천만을 배정해 정부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부미뿌트라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RM9천5백만에 달하는 여성 사업가 지원책 또한 부미뿌트라 대행사에 배정되었다. 국영 플랜테이션인 펠다(Felda)에 지급되는 RM4억은 거주자의 부채 탕감과 발전 프로그램에 할애했다. 특히, PH정부하에서 폐지되었던 정부 정책 홍보를 담당하는 이슬람국을 다시 신설하며 폐쇄 이전의 예산보다 4배가량 많은 RM8천5백만의 예산을 배정했다(Malaysiakini

2020/11/08).

VI. 대외 관계

무히딘 야신 총리의 PN정권은 권력 기반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건 및 경제적 차원의 대응에 최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외교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전통적으로 말레이시아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총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무히딘 총리는 대외 관계와 관련된 경력이 거의 없다. 코로나 사태와 국내정치적 긴박성 등으로 인해 외국 방문이 없었던 무히딘 총리의 소극적 자세를 고려할 때 마하티르의 PH정권에서 제시한 국방 및 외교 비전과 전략은 대체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마하티르가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균형을 시도했던 반면 무히딘의 경우 일본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이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동방정책 2.0과 마하티르가 추진했던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사무라이 본드 발행 등은 코로나와 국내 정치의 영향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정이 타결되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회 회기 단축 등의 이유로 비준하지 못했다.

11월 말레이시아는 의장국으로 APEC 정상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뿌뜨라자야(Putrajaya) 비전 2040’과 ‘쿠알라룸푸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코로나 위기 극복,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혁신 등과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평화롭고, 개방된, 회복력 있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2040년까지 건설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1994년 채택된 APEC ‘보고르 비전’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채 만료되었다. ‘뿌뜨라자야비전’은 향

후 20년 이내에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실현하자는 계획이다. 2019년 마하티르는 APEC비전으로 ‘공동번영’(shared prosperity)을 강조한 바 있다(Xinhua 2019/12/04).

코로나 정국에서 말레이시아 외교정책의 중점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심화에 두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등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통한 코로나 관련 외교가 대표적이다. 주변국 중에는 싱가포르와의 방역 및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현안들이 제기되었다. 싱가포르와는 기본적 협력 관계가 유지되었지만,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철도(KLSG-HSR) 사업이 최종 취소되었다. 해당 사업은 2010년 말레이시아 측이 제안한 이래 양국 관계는 물론 동남아 연계성에 기여할 대형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다. 건설비용은 토지 보상비용을 제외하고 약 USD151~180억으로 추산되었다. 2018년 PH 정부가 들어서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 방침으로 착공이 2020년 5월로 연기됨에 따라 완공 시점도 2031년까지 지연되었었다. PN정권은 이를 2020년 연말까지 추가 연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집중 대응과 건설 프로젝트 비용 감축 방안 마련이 연기 요청의 사유였다. 최종 사업 취소에 따라 말레이시아 측이 싱가포르에 USD2억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대형 사업 취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싱가포르와의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외교적 분쟁이 아닌 말레이시아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의한 결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권력 기반이 취약하고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 프로젝트에 관심이 적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추진과 네트워크 운영을 책임질 AssetCo회사 설립 취소를 말레이시아에서 제기했는데 이는 하청기업의 선발과 운영에 있어 싱가포르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Straits Times 2021/01/05). 양국 간 유동 인구가 많고 경제적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와 조호바루 국경을 연결하는 4km에 달하는 RTS(Rapid Transit System) 철도 건설에 착수하는 등 기타 관계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국은 말레이시아 교역에 있어 중요 파트너로 여전히 대외 관계에 있어 중요성을 가진다. 2020년 10월 무히딘 총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났다. 중국은 코로나 관련 협력 제공을 약속했으며 중국 측 자본이 참여하는 동부해안열차프로젝트(ECRL)건설은 지속하기로 했다. EU의 말레이시아산 팜유 수입 규제 속에 중국 측은 지속적인 말레이시아 팜유 수입 의사를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5G 서비스의 2023년 개시를 목표로 화웨이(Hwawei)와 손잡고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C 2020).

미국과의 경제관계도 여전히 중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서의 지리적 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의 역할과 참여는 중요한 사안이다. 아세안의 중립성(neutrality)과 중심성(centrality)을 기반으로 아세안 회원국들은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며 인태전략에 대해 ‘아세안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방위백서에서 밝힌 바대로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 역할을 표방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차원의 대응 이외에는 별도의 공식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와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등과 전통적으로 양자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정책은 말레이계에 의존하는 PN정부에서 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8월 13일 체결된 아브라함협정(Abraham Accords)에 따른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수립과 관련하여 UAE의 주권적 행위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아브라함 협정에 관련한 지지 표명은 하지 않았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이스라엘과의 외교단절을 지속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과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나집 정권은 예멘사태와 관련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바 있다. 이후 집권한 PH정부는 이를 철수시킨 바 있다(Tan 2020). 국내정치적 여건이 말레이계 지지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PN정부는 이슬람 국가로서의 전통적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관계는 2019년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12월 양국은 문화·예술·유산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3년 개원 목표로 한국문화원을 설립하여 문화교류에 활용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12월에는 한국 외교부와 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ISIS)와 공동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말레이시아 관계, 지난 60년과 미래'를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0년 11월 말에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검체채취 키트 각 2만3천 회 분량을 3차 대유행을 겪는 말레이시아 측에 전달했다(연합뉴스 2020/12/04).

말레이시아와 북한 관계는 코로나와 말레이시아 정권교체로 관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2017년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마하티르가 관계 정상화에 관한 관심을 표명했다. 2019년 10월 당시 마하티르 총리와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만나 양국 관계 정상화를 논의한 바 있다.

VII. 전망

2020년은 정권교체에 성공한 개혁(reformarsi) 세력이 반세기 넘게

지속된 구질서의 해체라는 민주화 이행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이는 2019년 말로 접어들면서 PH가 마하티르의 총리직 이양을 둘러싸고 내부의 파벌 갈등을 심화시키며 불확실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2018년 총선에서 재집권에 실패한 UMNO는 오랜 숙적인 PAS와의 공조를 통하여 말레이 종족정치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의 시작과 함께 UMNO와 PAS가 개혁세력의 일부와 결탁하여 의회 쿠데타를 성공시킨 것이다. 의회 쿠데타의 발발은 단순히 구체제로의 복귀 혹은 민주화 이행의 유턴(U-turn)을 넘어서 다종족사회인 말레이시아가 ‘말레이-무슬림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종족, 종교정치의 격랑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치세력에 기반한 무히딘 총리가 ‘권력’을 중심으로 물리적으로 결합한 집권연합의 ‘생존 게임’에서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19 팬데믹은 격렬했던 권력투쟁의 이슈들을 통째로 삼켜버리며 태생적으로 정통성의 위기를 안고 출발한 무히딘 총리에게 우호적인 여건을 제공했다. 무히딘 정권의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지녔던 2020년 9월 사바 선거에서 Bersatu가 주도하는 PN이 야권연대인 Warisan Plus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정통성의 시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2023년 의회가 자동으로 해산될 때까지 무히딘 차기 총선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권연합의 소수파인 Bersatu의 허약하고 불안정한 기반이 2023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되는 2021년 8월 이후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2021년에 접어들면서 UMNO의 거의 모든 지구당이 Bersatu와 선거동맹을 거부하면서 UMNO와 무히딘 정부와의 공식 결별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야권 역시 인위적인 정권 재탈환을 염두에 둔 안와르의 ‘숫자 게임’의 거듭된 실패로 인한 불신과 분열로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조기 총선을 목전에 두고 야권의 분열이 여권처럼 정당연합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안와르가 야권연합의 총리 후보로서 지난 총선과 같은 정치적 위상을 유지할지는 미지수이다. 차기 총선에서는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당연합이 정국을 주도할 정도로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 2021년에 접어든 말레이시아 정가의 현주소이다. 이 경우에 의회 쿠데타 이후 각 정파 간의 이합집산에 의한 권력 장악의 흐름이 차기 총선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8년 총선에서 PH가 개혁과 반부패라는 ‘가치동맹’으로 정권교체를 성사시켰으나, 차기 총선에서는 ‘권력동맹’에 기반한 집권연합이 탄생할 개연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지배엘리트의 갈등과 분열은 오래된 권위주의체제의 붕괴로 인한 정치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는 일당 우위적 패권적 지배체제가 장기간 지속된 말레이시아 정치에서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8년 정권교체 이후 민주화 이행의 실험대에 놓였던 PH는 지배엘리트의 갈등과 분열로 인해 구체제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당 내의 파벌 경쟁은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직하고 표출시킴으로써 조직의 과두화 및 경직화를 방지하는 순기능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의회 쿠데타 이후 말레이시아의 파편적인 정치 상황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UMNO가 누려왔던 패권적 지위가 상실되면서 어느 특정 정당도 정치적 장악력이 강력하지 않은 현 상황이 향후 말레이시아 정치를 보다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경로로 견인할 개연성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침체와 사회적 파장은 PN정권에 큰 부담으로 대두되었다. 해외직접투자 유입의 감소는 말레이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재정 건전성에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다. PN정권 등장으로 개혁의 후퇴와 말레이계 중심의 정경유착이 심화될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외 신뢰도에도 부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바이러스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요인이자 위험성이다. 이에 더해 PN정권하에서 개혁 정책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재정적자 증가, 해외직접투자 유치 감소 등의 구조적 제약요건 속에 4차 산업혁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히딘 총리의 개인적 성향과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교 행보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말레이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종교적, 종족적 요인과 대의적 명분과 관련된 외교 현안을 국내 정치의 연장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0. “We believe pro-Malay politics, while divisive, will play to populist instincts and win the coalition popular support.” March.
- Faisal Asyraf. 2021. “Annuar: Zahid Gave Order Not to Register Muafakat Nasional.” *Malaysiakini*. January 6. <https://www.malaysiakini.com/news/557840>.
- Free Malaysia Today. 2020. “FMM Hits Out at New Proposed Condition for Foreign Worker Intake.” December 15.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0/12/15/fmm-hits-out-at-new-proposed-condition-for-foreign-worker-intake>.
- Ftich Ratings,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downgrades-malaysia-to-bbb-outlook-stable-04-12-2020>.
- Hariz Mohd. 2020. “Full Transcript: Anwar’s Announcement of Securing Parliament Majority.” *Malaysiakini*. September 23. <https://www.malaysiakini.com/news/543756>.
- Hidir Reduan Abdul Rashid. 2020. “Najib Sentenced to 12-year Concurrent Prison Term, RM210m fine.” *Malaysiakini*. July 28. <https://www.malaysiakini.com/news/536470>.
- Jusoh, Sufian. 2020. Malaysia’s Direct Investment Policy Post-Covid 19:an Early Anlaysia of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 IKMAS Working Paper 1/2020. <http://www.ukm.my/aief/wp-content/uploads/2020/04/S-Jusoh-MALAYSIA-FDI-POST-COVID-IKMAS-Working-Paper-4.4.2020.pdf>.
- Khoo Boo Teik. 2020. Malay Politics: Parlous Conditions, Continuing

Problems. Singapore: ISEAS Yusof Ishak Institute.

- Kuek, Ser Kwang Zhe. 2020. In the Know: Debt-to-GDP ratio, The Edge Malaysia. July 21.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intheknow-debtogdp-ratio>.
- Malaymail. 2020. "Fitch Solutions Foresees Slower Economic Growth in Next 10 Years Compounded by Political Uncertainty, Covid-19." September 30.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0/09/30/fitch-solutions-foresees-slower-economic-growth-in-next-10-years-compounded/1908043>.
- Malaysiakini. 2020. "'After Apec' Vague, Transition Date Will Dispel Backdoor Government Talk - PKR MP." February 21. <https://www.malaysiakini.com/news/511748>.
- _____. 2020. "Amanah and DAP Nudge PKR on 'Way Forward' to Retake Putrajaya." July 27. <https://www.malaysiakini.com/news/536275>.
- _____. 2020. "Whatever the Decision on Friday, Dr M to Quit After Apec." February 12. <https://www.malaysiakini.com/news/511322>.
- _____. 2020. "Zahid: Umno Will Not join PN Coalition but be Still Part of Govt." July 30. <https://www.malaysiakini.com/news/536749>.
- _____. 2020. "Don: How Will PN Ensure Politician-helmed GLCs Deliver Budget Initiatives?" November 8. <https://www.malaysiakini.com/news/549955>.
- _____. 2020. "Sidestepping Poser on Ku Li Offer, Minister Explains Petronas losses." December 3. <https://www.malaysiakini.com/news/553566>.

- _____. 2020. "Experts: PN Govt Squandering Opportunity to Restructure Economy." December 7.
<https://www.malaysiakini.com/news/554176>.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diaeiainf2021d1_en.pdf.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Wang Yi Talks about the Eight-point Consensus of China and Malaysia." October 13. https://www.fmprc.gov.cn/mfa_eng/wjb_663304/wjbz_663308/activities_663312/t1824141.shtml.
- New Straits Times. 2020. "Survey Shows Malaysian's Blame Politics, Not Pandemic, for Economic Woes." October 16.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0/10/632868/survey-shows-malaysians-blame-politics-not-pandemic-economic-woes>.
- Ng Xiang Yi. 2020. "DAP Adopts 'Wait and See' Approach over Anwar's Game of Thrones." Malaysiakini. October 21. <https://www.malaysiakini.com/news/547511>.
- _____. 2020. "Umno's Involvement in Anwar's Takeover Bid Takes DAP by Surprise." Malaysiakini. September 24. <https://www.malaysiakini.com/news/543813>.
- Ong, Andrew, Spoils of war: Sharing the Loot, PN-style, Malaysiakini, 20 May, 2020. <https://www.malaysiakini.com/news/526530>.
- Rahimy Rahim. 2021. "Nazri Withdraws Support for Muhyiddin." The Star. January 13.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1/01/13/nazri-withdraws-support-for-muhyiddin>.
- Saravanamuttu, Johan 2020. Malaysia - China relations in the time of

- COVID-19. East Asia Forum, 2020 April 1. <https://www.eastasiaforum.org/2020/04/01/malaysia-china-relations-in-the-time-of-covid-19>.
- Straits Times. 2021. "S'pore Could Not Accept KL's Proposal to Remove AssetsCo." January 5.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politics/spore-could-not-accept-kl-proposal-to-remove-assetsco>.
- Tan, Ariel. 2021, The Abraham Accords: Malaysia's Cautious Response. RSIS Commentary. <https://www.rsis.edu.sg/rsis-publication/rsis/the-abraham-accords-malaysias-cautious-response/#.YFL5WWT7SBQ>.
- Tan, Tarrence. 2020. "More Umno MPs May Withdraw Support from Perikatan Soon, Says Nazri." The Star. January 10.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1/01/10/more-umno-mps-may-withdraw-support-from-perikatan-soon-says-nazri>.
- _____. 2021. "Speculation Swirling: Hishammuddin as DPM?" The Star January 11.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1/01/11/speculating-swirling-hishammuddin-as-dpm>.
- Tan, Yee Shin & Mohamed Aslan. 2013. "Malaysia: Members of Parliament and the Budget Plan." Jati, Volume 18, December, pp. 43-59.
- The Star. 2020. "UN report: Malaysia's national poverty line does not reflect reality, needs revision." July 6.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0/07/06/un-report-malaysia039s-national-poverty-line-does-not-reflect-reality-needs-revision>.
- UNCTAD. 2021, Investment Trend Monitor.
- Wong Chin Huat. 2020. "How Many Budget 2021 be Defeated or

Saved?” Malaysiakini. November 26.

<https://www.malaysiakini.com/columns/552570>.

Xinhua. 2019. “Malaysia Aims to Promote Shared Prosperity Vision at APEC 2020.” December 4.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9-12/04/c_138604969.htm.

Yeap, Cindy, 2016. The State of the Nation/Economic Report: Why Malaysia’s debt burden is still above RM1 trillion, The Edge Malaysia. November 2016.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state-nationeconomic-report-why-malaysias-debt-burden-still-above-rm1-trillion>.

문화체육관광부. 2020. “보도자료: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 계기 문화협력 강화.” 12월 23일.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573&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연합뉴스. 2020. “한국 정부, '코로나 3차 유행' 말레이시아에 진단키트 지원.” 12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4080300104>.

(2021.04.11. 투고, 2021.04.12. 심사, 2021.04.24. 게재확정)

<Abstract>

Malaysia 2020:
the Political Coup and the Politics of Dilemmas

KIM Hyung Jong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HWANG In W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20 should have been a critical juncture for further stable democratisation to be committed by Pakatan Harapan(PH) or *reformasi* group that overturned an old political order. However, PH government collapsed by a ‘political coup’ in two years after first-ever election defeat on then ruling coalition Barisan Nasional (BN) which had been in power for more than 60 years since independence. Politics in Malaysia has become much more volatile as unprecedented political turmoil and uncertainty caused by the weak political legitimacy of Perikatan Nasional, improvised ruling coalition, that had a majority of just two seats. An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has made it difficult to response effectively to COVID-19 which brought negativ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Some economic issues such as increasing government debt and dwindling foreign directive investment have appeared to be a structural problem.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se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the political dynamics in 2020 by focusing on the following questions: How did the political coup occur?; What are political implications and

impacts of the political coup particularly on the ruling coalition and opposition parties?; How are these political dynamics related with future political development in Malaysia?; How did the political factors affect on its economy and foreign relations? The political events in 2020 would mean not merely the return of the old order but a new beginning for political polarization with the revival of ethnic and religious politics led by Malay Muslim political forces.

Key Words: Pakatan Harapan, Perikatan Nasional, Political Coup, COVID-19, Mahathir Mohammad, Anwar Ibrahim, Malaysia

